동북아 三國 불교도 "세계평화 기원"

제23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세계평화기원법회

코로나19 팬데믹에 순연되다
4년 만에 봉은사서 대회 봉행
韓中日 국가별 예불 · 축원도
진우 스님 "전도선언 새겨야"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4년 만에 재회한 한 · 중 · 일 3국 불교지도자들의 표정은 밝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다시 확인한 황금 유대가 뜻깊었을까. 한차례 비가 쏟아진 뒤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졌지만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으로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법석의 열기는 뜨거웠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중국불교협회,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는 11월 7일 오전 서울 봉은사에서 제23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순연되다 4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3국 불교지도자들. 그 사이 한국대표인 종단협 회장은 진우 스님으로 바뀌었지만 이들의 만남에 어색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3국 불교지도자들은 취타대의 행진을 따라 봉은사 진여문을 지나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 자리했다. 각국 대표단을 맞이한 건 대회 개최지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스님은 3국 불교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년고찰에서 함께하는 법석에 의미를 부여했다.

원명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대회에서 동아시아 3국 불교도들이 일불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역 평화 정착과 인류 화합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불법을 홍포할지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 세 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에 불교 중흥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회에선 3국 불교계가 각국의 전통방식으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예불을 부처님전에 올렸다. 한국 측 의식은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집전을 맡았다. 더불어 종단협 회장단과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이 함께 칠정례를 봉송했다. 축원은 종단협 부회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이 했다. 20분간의 예불이 끝난 뒤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세계평화기원 메시지를 통해 3국 불교계의 변함없는 우정과 동체대비 정신을 강조했다.


11월 7일 봉은사에서 봉행된 제23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3국 대표 스님들이 부처님전에 헌화한 뒤 합장례를 하고 있다.

진우 스님은 "지금 지구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빈곤, 기아, 폭력, 불평등, 양극화 등으로 국제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평화는 탐욕과 분노를 씻어야만 가능하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나와 사회가 둘이 아니라는 인과의 이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3국 불교도들이 먼저 이 세상을 자비로 채워나가자. 부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밝히자"면서 "그러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전도선언을 새겨야 한다. 전도선언을 최우선 목표로 전법과 포교활동에 매진해 부처님 법을 전하자"고 당부했다.

한국에 이어 중국과 일본도 각각 의식을 진행했다. 중국불교협회장 연각 스님과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장 이토 유이신 스님은 '공생'의 가치에 공감하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먼저 연각 스님은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중생은 동체공생하고 있으며 인류사회는 상호의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 불교도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더욱 받들고 황금 유대 관계를 계승해 인류행복, 세계평화 구축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90세가 넘는 고령의 이토 유이신 스님은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일본정토종 종무임원 미야바야시 유겐 스님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불교에는 보살의 서원이 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사홍서원"이라며 "인간세계는 다양한 관계를 유지해 생존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생명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여러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법회가 끝난 뒤에는 봉은사 종각 앞에서 3국 회장단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기념식수를 하며 3국의 끈끈한 유대를 재확인했다. 이어 오후에 서울 코엑스호텔 하모니볼룸에서 '4차 산업시대 불법홍포를 위한 3국 불교도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강연회를 연 3국 불교계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전쟁 종식 등을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에 뜻을 모았다. 3국 불교계는 "4차 산업의 발달은 자칫 인류의 가치관 및 윤리 혼란과 직업 붕괴 등 폐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3국은 이를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비해야 한다"며 "인간과 자연이 일체라는 화엄사상의 '상입상즉(相入相卽)' 가르침을 깊이 새겨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3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일즉다 다즉일'의 진리에 따라 서로 화합하여 하나가 됨으로써 조화와 평화의 세계 이룩 △불법의 진리와 생활 속 수행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불살생 가르침에 따라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며 모두가 공생하는 지구촌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사찰 활성화, '관계신도' 확대에 달렸다"

김재춘 소장, 사찰 특성화 연구 매뉴얼 개발

조계종 미래본부 결과보고회
벤치마킹할만한 사찰 소개도

일본의 시민활동가 다카하시 히로유키가 2016년 저서 〈도시와 지방을 뒤섞다〉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 '관계인구'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위기에 처한 사찰을 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올랐다. 관계인구는 지역 거주자는 아니지만 해당 지역과 일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말한다. 몇 년 전부터 일본이 시행 중인 관계인구 정책 개념이 한국 불교에도 필요하다는 것.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1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사찰 특성화 방안 연구 및 운영 매뉴얼 개발' 결과 보고회에서 이 같은 관계인구에 대응하는 '관계신도' 개념을 강조했다. 일반적인 신도의 개념이 재적사찰에서 신행 · 수행을 하며 정기적으로 법회나 불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관계신도는 단순히 불교가 좋아서 또는 쉬어가고 싶어서, 산사음악회가 궁금해 절에 찾아가보는 가볍게 인연을 맺는 사람들을 뜻한다.

김재춘 소장은 "귀촌이나 귀농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 지역에 관광을 왔던 경험이 있거나 친척이 사는 등 어떤 식으로든 작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게 확인된다"며 "꼭 불교를 믿고 따르고 깨달음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떤 내용으로라도 인연이 되는 가벼운 관계의 신도가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미래본부의 연구용역으로 매뉴얼 개발에 착수한 김 소장은 1인 이상 상주하는 스님과 사무장, 공양주를 두고 신도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을 활성화 대상으로 정했다. 사실상 독살이 사찰은 활성화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계종 미래본부 결과보고회에서 관계신도의 중요성을 설명한 김재춘 소장.

김 소장은 활성화 전략으로 △탈종교적 유연성과 확장성(관계신도 증대) △사찰별 특성화 유형 분류로 세분화 및 전문화 △종단의 지원 체계 구축을 꼽았다. 더불어 사찰 특성화 유형은 수행 · 명상, 상담 · 휴식, 불교문화, 문화 · 예술 · 체육, 복지 · 나눔, 교육, 환경, 경제, 공동체 총 9가지로 분류했다.

이를 위해선 성공 요인 분석을 비롯해 기초 · 고도화로 구분된 매뉴얼, 유형별 전문 교육체계, 학습 커뮤니티 운용, 전문사찰 인증 제도, 사찰 활성화 기금 조성 등 종단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소장은 연구과정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전국 4개 사찰 사례를 조사했다. 수행 · 명상 부문은 부산 미타선원 행복선명상센터, 상담 · 휴식 부문은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복지 · 나눔은 논산 지장정사, 공동체는 울산 백련사를 선정했다. 네 사찰 모두 각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면서 불자뿐만 아니라 비종교인까지 포괄하는 폭 넓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 소장은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불교 본질에 충실한 게 네 사찰의 공통점"이라며 "정답은 언제나 교과서에 있지만 모두가 실천하지는 않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어느 한 스님의 원력에만 기대 사찰이 활성화되길 기대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보다 중요해졌다"고 부연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신임 법계위원장 법산 경일 대종사 선출

11월 8일 위원 위촉 및 회의



조계종 법계품서를 관장하는 법계위원회 새 위원장에 법산 경일 대종사〈사진〉가 선출됐다.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1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새 위원장으로 법산 경일 대종사를 선출했다. 법산 대종사는 지난해 3월 법계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한 바 있다. 법계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같은 날 중앙종회의 위촉 동의를 거친 새 법계위원 법산 · 경선 · 돈명 · 무상 · 성법 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식엔 법산 · 경선 · 성법 스님이 참석했다.

진우 스님은 이 자리에서 "종단에 위원회가 많지만 법계위원회는 상위 위원회 중 하나"라며 "어른스님들께서 종도들을 잘 보살피고 이끌어주시는 데 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법산 스님은 "종도들의 화합된 마음을 결집해서 법계품서를 잘하겠다"고 화답했다.

법계위원회는 각급 법계의 품서, 특별전형, 포상법계, 법계무효 등을 관장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한편 법산 스님은 덕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1년 수계했다. 고시위원장, 학림사 주지,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2018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경선 스님은 법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7년 수계했다.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계단위원, 재심호계위원, 법규위원 등을 역임하고 2021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돈명 스님은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9년 수계했다.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박물관장, 능인사 · 흥국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은해사 회주다. 2023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무상 스님은 성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수계했다. 제21교구본사 송광사 주지, 호계원장, 재심호계위원 등을 역임하고 2023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성법 스님은 정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수계했다.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중앙선거관리위원, 염불사 · 만의사 주지를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진각국사 전승관 건립을 위한 모연에 동참해 주세요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한국불교의 큰 발자취를 남기신 고려 2대 국사인 진각국사 전승관 건립을 위한 땅 1평 불사를 봉행합니다.
진각국사 혜심 큰스님은 지눌스님의 뒤를 이어 고려의 2대 국사로 간화선을 크게 펼치고, 「선문염송」, 「선문강요」 등 간화선 수행하는 스님들의 큰 가르침을 전하신 한국불교의 큰 어른입니다.
사)진각국사선양회는 지난 20여 년간 진각국사께서 탄생하신 화순에서 큰스님의 얼과 가르침을 이어가고자, 19년간 다례재와 학술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선양사업을 지금껏 정성을 다해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큰스님의 뜻을 선양하기 위해 탄생하신 곳에 건립하고자 했던 전승관 건립이 소승의 힘으로 요원하여, 여러 대덕 큰스님과 불자님들에게 모연을 청하옵니다.
진각국사 전승관은 어린 학생과 지역 주민, 그리고 화순을 오는 방문객에게 진각국사의 가르침을 알리고 수행하는 장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모연해 동참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불사에 동참한 분은 사적비에 이름을 새겨 영구히 보존하겠습니다.

▮주 소 : 전남 화순군 춘양면 돌정1길 24 혜심사
▮전 화 : 010-2971-4646
▮모연계좌 : 농협 355-0057-0146-43 (진각국사)

(사)진각국사선양회 대표 대현 합장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